

자신의 정체성을 알기 위해서는 자신의 시작을 알아야만 한다

| 니사르가닷따 마하라지 | 로버트 파웰 편집 | 김병채 옮김 |

우리는 삶의 어느 순간 자신에게 '나'라든가 '세상'이 지금의 모습으로 나타남을 경험합니다. 그렇다면 그 '나'와 '세상'이 나타나기 전에 나는 누구였을까? 바로 그 시작의 시점으로 돌아가보라고 마하라지는 말합니다. 그때 '나'와 '세상'이라는 현상에 물들지 않은 자신의 본성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편집자 주).



영성은 참나 상태에 거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대가 분별이 나 영성과 같은 어떤 주제를 논의한다거나 생각할 때, 그대는 그것을 객관적으로 그리고 단편적으로 연구합니다. 그러나 나는 모든 것을 포용하는 원리인 참나를 가리킴으로써 그것을 주관적으로 그리고 전체적으로 연구합니다. 참나를 이해하십시오. 참나로 존재하십시오.

그대의 몸과 생명의 호흡과 존재성(beingness)이 거기에 있는 한, 그대는 “그대가 존재한다(you are)”는 것을 압니다. 생명의 호흡이 사라지면 몸은 쓰러져 죽고, 존재성(beingness)의 불꽃은 꺼집니다. 이 과정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죽은 자는 어떤 것도 알 수 없습니다. 죽은 자는 “그의 현재의 존재”나 “그의 과거의 존재”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했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과 함께 했던 이러한 “죽은”자의 존재를 기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대 존재성(beingness)의 뿌리로 돌아가십시오. 그 과정에서 존재성(beingness)은 초월될 것이고, “그대가 존재한다”는 지식도 없는 궁극적인 “참 그대”만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 궁극적인 상태가 비슈란티라고 하며, 그것은 완전한 휴식이나, 완전한 이완, 완전한 평온 등을 의미합니다.

그 말의 다른 의미는 그 단어를 분할했을 때의 비샤라-안띠(vishara-anti), 즉 결국 그대 자신을 잊게 된다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 말은 궁극적 상태에 들어가면 “그대의 존재성(you-are-ness)”이 완전히 망각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존재하든” 혹은 “내가 존재하지 않든지”간에, 그 둘 다 망각됩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높은 형태의 휴식, 즉 빠람마-비슈란띠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온순하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의문이 생기면 반드시 질문을 하십시오. 누구든지 질

문을 하려 한다면 그들은 몸-마음의 수준에서 할 것이고, 마음은 우리가 외부에서 수집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중략...)

마하라지 그대 나이는 얼마입니까?

방문객 61살입니다.

마하라지 (그대의 수명 중) 61년 남짓한 기간보다 하루 앞선 날로 돌아가면, 그대는 그대가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까?

방문객 분명히 몰랐습니다. 나는 내가 태어나기 전에는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마하라지 그런데 태어난 후에도, 그대는 도대체 왜 그대가 태어났는지를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까? 일찍이, 이러한 “나의 존재성(I-am-ness)”의 지식은 태어나기 이전에는 거기에 없었습니다.

방문객 나는 내가 언제 태어났는지를 모릅니다. 또한 언제 죽을지도 모릅니다.

마하라지 그러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왜 그대는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대가 “나의 존재(I am)”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어떻게 그 지식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그대가 모르는 사이에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마치 잠자던 사람이 깨어나서 그에게 커다란 종기가 생긴 것을 보고, “언제 나에게 이 종기가 났지?”라고 물어보는 것처럼, 그대는 왜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방문객 나는 정말 물어보았습니다.

마하라지 누구에게 물어보고 어떤 대답을 얻었습니까?

방문객 하지만 아무 대답도 얻지 못했습니다.

마하라지 “내가 존재한다(I am)”는 이 지식은 어떻게 그리고 왜 나타났습니까? 그대는 반드시 그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내가 존재한다”는 이 지식은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방문객 모릅니다.

마하라지 그대는 그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모든 형태의 정보를 가지고 있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수천 명의 사람들이 배 안에서 익사했습니다. 그들의 현재 상태에 대하여 그대는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까?

방문객 죽음입니다.

마하라지 분명히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음이나 출생에 대해 몰랐던 사람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 알 수 있겠습니까?

방문객 우리는 죽은 사람의 입장에서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마하라지 죽은 자의 입장에서 물어보겠습니까?

그대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이러한 지식은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공”에서 이러한 “나의 존재성(I-am-ness)”이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그대가 태어나기 전에, 그대는 “나의 존재성(I-am-ness)”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방문객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마하라지 왜 “아마도”란 말을 합니까?

방문객 명백히 없습니다.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 대하여 어떤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단지 쓸데없는 질문에 불과합니다.

마하라지 그대가 죽음을 맞이할 것이 명백한데, 왜 그대는 지금 그 지식을 붙들고 있습니까? 태어나기 전에 그대는 그대가 존재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대는 죽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대는 천국이나

지옥, 미덕, 죄악과 같은 이 모든 개념들을 붙들고 있습니까? 이제 그대가 이 모든 이야기를 들었으므로, 반대로 돌아서서 보시겠습니까?

방문객 가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하라지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결국, 그대는 “나”나 “나의 것”과 같은 것이 전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해야 합니다. 적어도 그대의 시작을 보십시오.

방문객 우리에게 시작할 권리는 있지만 끝낼 권리는 없나봅니다.

마하라지 나는 그대의 시작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대는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방문객 나는 나와 나 자신에 관심이 많습니다.

마하라지 그러나 그대는 그대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까?

방문객 제게 은총을 내려주십시오.

마하라지 내 앞에 그대의 정체성을 갖다 놓으십시오. 그러면 그것에 은총을 내려주겠습니다. 확실히 자신의 시작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무엇을 해달라고 누군가에게 간청할 수 있었습니까?

그대가 모른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지만, 왜 그대는 여전히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방문객 그것은 본능입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마하라지 그 본능적인 일어남은 무엇입니까? 태어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대는 그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대에게는 강한 충동이 없기 때문에 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대에게 강한 충동이 있다면, 그때서야 비로소 깨달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그대는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이겠지만, 다른 누군가는 마치 장님이 맷돌로 작업하는

동안 개가 밀가루를 다 먹어치우듯이, 이득을 취할 것입니다.

방문객 어떻게 하면 이 무지를 없앨 수 있습니까?

마하라지 집요하게 참나 속에 거주함으로써 가능합니다. 참나에 대하여 명상하십시오. 참나에 대한 완벽한 지식을 얻으려면 그대는 고집과 인내의 하타 요가를 해야 합니다.

방문객 그런 지식을 얻은 사람이 있습니까?

마하라지 예. 극소수의 사람, 천만 명 중 한 사람입니다. 이런 수학적 확률을 보고, 이제 그대는 탐구를 포기하시렵니까?

방문객 저는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마하라지 그대는 귀를 꼬집은 뒤에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까?

방문객 처음부터 노력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마하라지 그대의 개념들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냐니(jnani)는 개념을 초월합니다. 그는 어떤 개념에도 중요성을 두지 않습니다.

방문객 그는 우리가 지금 얼마나 노력하고 있으며 또 얼마나 일찍부터 노력해 왔는지 모를 것입니다. 당신은 모릅니다. 라마끄리슈나 빠라마함사는 어머니께 “오 어머니, 저를 생각과 지식 너머로 데려가 주십시오. 그 생각과 지식 때문에 미치겠습니다.”라고 호소했습니다.

마하라지 그대는 생각과 지식을 초월하기 위하여 직접 노력했습니까? 아니라면 왜 다른 사람들을 들먹입니까?

방문객 안 했습니다.

마하라지 만약 그대가 그대 자신에 대한 처방을 시도해 보지 않았다면, 왜 그것에 관하여 이야기합니까? 왜 다른 사람의 판단을 소개합니까? 그대는 말이 없어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말이 없다면 그대는 일상생활을 어떻게 꾸려나갈 수 있습니까? 나는 그대 출생의 내력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대가 왜 어떤 사람을 그대의 “아버지” 혹은 그

대의 “어머니”라고 부르는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대는 왜 그대 자신에 대하여 신경 쓰지 않고, 타인들, 즉 라마끄리슈나 빠라마함사와 같은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그대가 무지하다면 타인들에 대하여 알아보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대가 그대 자신에 대하여 관심이 있다면, 오직 그대 자신에 대해서만 알아보십시오. 내가 “나의 존재성(I-am-ness)”을 이해함으로써 그것을 기쁘게 해주었을 때, 오직 그때서야 나는 이 “나의 존재성”을 알게 되었고, 또한 그 과정에서 절대적 상태인 “내”가 그 “나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 곳에 그대로 계십시오. 이미 모든 지식을 모았으므로, 사람이 없는 조용한 곳에서 그것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끝) 

- 이 글은 ‘불멸의 벡타’에서 발췌하였습니다.
-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없이 무단 전재나 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저자 | **니사르가닷따 마하라지(Nisargadatta Maharaj)** | 니사르가닷따 마하라지는 인도 뭄바이에서 1897년 3월 15일 하누만 자안띠 날에 태어났다. 몹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처음에는 어느 회사 사원직을 하다가 그만두고 담배 장사를 하면서 평범한 상인의 삶을 살았다. 그러던 중 37세 때 친구의 안내로 스승인 싯다라메쉬와르 마하라지를 만나 수행의 길에 들어섰다. 스승을 만난 지 3년만인 1936년, 40세에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후 점차 세상에 알려져 그의 집에는 구도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1981년 9월 8일 암으로 생을 마감하는 그날까지 그는 가르침을 베풀었다.

역자 | **김병채(Sri Krishnadass)** | 그는 어린 시절부터 자유로움과 진리를 추구하였다. 여러 직업을 전전하다가 1988년 12월 인도로 건너가 성자 요겐 드라지, 오소 라즈니쉬, 테레사 성녀, 달라이 라마, 나나가루 등 다수의 성자를 만났다. 그후 슈리 라마나 마하리쉬의 힘에 이끌리게 되어 라마나스라맘에 머물렀으며, 1989년 4월 22일 갠지스 강가의 하리드와르에서 라마나 마하리쉬의 제자 슈리 폰자와의 샷상을 통하여 마침내 회열에 들었다. 그는 스승으로부터 슈리 크리슈나다스라는 이름을 받았으며 지속적인 만남을 통하여 무한한 사랑도 받았다. 지금은 국립 창원대학교와 대안대학원인 산티구루쿨에서 요가 및 베단타를 가르치고 있으며, 영원한 샷구루이신 슈리 라마나와 슈리 폰자의 가르침을 펼치기 위하여 창원 북면에 슈리크리슈나다스 아쉬람을 열고서 샷상을 주는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다.

불멸의 넥타

니사르가닷따 마하라지의 가르침

니사르가닷따 마하라지 저 | 김병채 譯 | 슈리크리슈나다사아쉬람 刊 |

14,000원

「불멸의 넥타」는 요가의 수련이나 방법이 아닌 요가의 본질을 알려주고, 사물의 핵심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책이다. 37세에 수행의 길에 들어선 니사르가닷따 마하라지는 3년 만에 완전한 깨달음을 얻고 이 책을 통해 우리에게 믿을 만한 요가의 분야를 소개하고 그의 진정한 영적인 투사의 정신을 드러내고 있다. 이 책에서 실제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초월 즉 '넘어서는 것'이며, 관찰과 명상을 통하여 자신의 존재성을 깨닫는 첫번째 과정과 이러한 자신의 존재성과 우주적 의식마저도 초월하는 두번째 과정을 저자와 방문객의 대화로 소개한다.



공의 경험 깨달음으로 가는 길

니사르가닷따 마하라지의 가르침

니사르가닷따 마하라지 저 | 이상훈 譯 | 슈리크리슈나다사아쉬람 刊 |

12,000원

「깨달음으로 가는 길」 제11권 『공의 경험』. 1981년 암으로 생을 마감하는 그날까지 완전한 깨달음에서 나오는 가르침을 베푼 힌두교의 성자 니사르가닷따 마하라지의 가르침을 담고 있다. 특히 저자가 생의 마지막 즈음에 설파한 가르침만을 모아 그의 깨달음의 정점을 문답 형식으로 맛보게 된다. 저자가 가르침을 설파하는 데 활용한 특별한 접근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상대방이 자신에게 오래 머물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해도 들어주지 않은 이유부터 상대방이 자신의 질문에 대해 분명히 타당한 말을 하거나 올바른 답을 할 때도 동의하지 않은 이유까지 밝힌다.

